

‘강철부대’ 비공개 영상, 유튜브서 뜨겁다

육준서 등 멤버들 순박한 일상 담아 ‘마스터’들의 뒷이야기도 화제몰이

채널A 예능프로그램 ‘강철부대’가 유튜브에서도 날아올랐다. 최근 4.9%(닐슨코리아)의 시청률을 기록한 프로그램이 촬영 뒷이야기와 전문가 분석 등을 담은 영상을 공식 유튜브 계정으로 공개해 최대 140만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화제몰이 중이다.

제작진은 방송에서 공개하지 않은 촬영 분량 일부를 채널A 유튜브를 통해 내놓고 있다. TV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출연자들의 새로운 면모가 이용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육준서·김범석·정종현·해군 특수전전단(UDT) 팀원들이 처

음 모인 날을 담은 지난달 30일 영상은 미션을 수행할 때 내뿜는 카리스마와는 달리 순박하고 수줍음 많은 이들의 일상을 고스란히 담아 ‘반전매력’이란 반응을 얻었다. 이에 힘입어 해당 영상은 공개 이틀만인 3일 오후 현재 142만 조회수와 1400여개의 댓글을 얻고, 인기 급상승 동영상 차트에도 올랐다.

촬영현장 ‘마스터’들이 뒷이야기를 들려주는 ‘리마스터’ 시리즈도 인기다. UDT 출신 마스터 테니가 1~6회 영상을 돌려보면서 풀어내는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가 담긴 영상이다. 이와 함께 SDT 김민수·SSU 김민수·UDT 김범석 등 화제의 인물들이 펼친 활약상을 재치 있는 입담으로 짚어내 눈길을 끌고 있다.

유튜브 영상은 시청자 궁금증을 직접 풀어주는 기회이기도 하다. ‘각 부대의



채널A 공식 유튜브로 공개된 ‘강철부대’의 한 장면. UDT 예비역들이 한데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출처 | 유튜브 영상 캡처

특기를 살린 미션을 만든다면?’ 등 시청자 댓글에 고무보트를 잘 고르는 법 등 전문가의 노하우로 답하며 호평을 얻고 있다. 향후 최영재·구본근 등 다른 마스터들도 차례로 등장할 예정이다.

‘강철부대’의 장시원 책임프로듀서는

3일 “앞으로도 방송에 담지 못해 아쉬웠던 촬영 영상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며 “시청자의 궁금증이나 출연자의 매력을 다양한 시선으로 조명하는 콘텐츠를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윤여정 8일 귀국 예정

‘오스카의 여인’ 금의환향

아카데미상 후 두 아들 만나고 ‘미나리’ 관계자들과 회포 풀며 귀국 후 별도 기자회견도 보도 온라인 기자회견 진행 가능성

배우 윤여정이 ‘금의환향’한다. 영화 ‘미나리’로 제93회 미국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거머쥔 윤여정이 8일 귀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여정은 아카데미 시상식 참석을 위해 지난달 13일 출국해 현재에 머물러 왔다.

3일 한 영화관계자는 “8일 귀국 예정으로 출국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현지 일정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현지에서 며칠 더 머무르게 돼 귀국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여정은 아카데미 시상식 이후 미국에 살고 있는 두 아들과 만나고, ‘미나리’ 관계자들과 회포를 풀며 여운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여정은 앞서 미국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애플TV플러스의 드라마 ‘파친코’의 캐나다 촬영을 마친 바 있다. ‘파친코’의 주요 스태프가 할리우드 유력 스튜디오 유니버설스튜디오그룹 소속으로 아시아 관련 신규 프로젝트를 기획 중이라는 점에서 지속

적인 해외 활동과 관련한 사항을 모색 중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여정은 귀국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미나리’의 한 관계자는 “윤여정이 언제 귀국할지 정확한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 오지 않았다”면서 “이에 따라 귀국 뒤 국내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한 기자회견 등도 아직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카데미상 수상에 따른 전세계적인 관심에 비해 온라인상으로는 국내 취재진을 만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여정은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의 ‘미나리’ 공식 초청 상영에 맞춰 온라인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또 3월3일 국내 개봉을 전후해서도 관련 자리를 마련한 바 있다.

한편 윤여정의 스크린 데뷔작인 김기영 감독의 ‘화녀’가 1일 재개봉했다.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화녀’는 CGV 시그니처K 등 전국 36개 스크린에서 이날 1000여명의 관객을 모으며 박스오피스 17위에 올랐다. 2일 CGV 집계 따르면 30대(33.8%) 여성(58.4%) 관객을 중심으로 20대부터 50대까지 각 20%가량 고른 비중으로 영화를 관람해 윤여정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미국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배우 윤여정이 8일 귀국할 예정이다. 사진출처 | 미국 아카데미 공식 트위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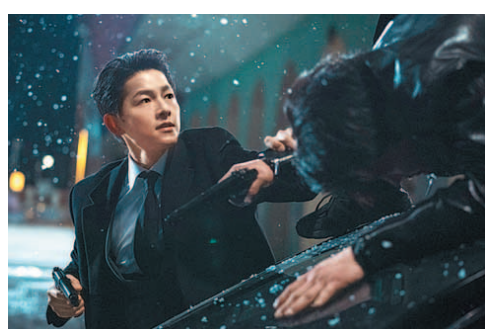


드라마 흥행 송중기, 영화 ‘보고타’로 중심이동

tvN ‘빈센조’서 악역 변신 호평 ‘보고타’선 콜롬비아 한인 역할

‘한류스타’ 송중기가 제대로 ‘변신’했다. 2일 종영한 주연 드라마 tvN ‘빈센조’를 통해 데뷔 이후 첫 악역으로 호평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드라마로 끌어올린 관심을 촬영 중인 주연 영화 ‘보고타’ 등으로 이어갈 기세다.

송중기는 극중 이탈리아에서 온 마피아 변호사 빈센조 까사노 역을 맡아 ‘독종’ 변호사 전여빈과 호흡을 맞췄다. 납치, 방



tvN ‘빈센조’ 송중기

화 등 폭력적인 방법으로 악역기업 회장 옥택연, 부와 명예에 눈이 먼 검사 출신 변호사 김여진 등 다른 악인들을 처단하

는 과정을 그려 12.3%(닐슨코리아)에 달하는 최고 시청률을 견인했다. 특히 권력을 틀어쥔 이들에게 사적 제재(공권력이나 법을 통하지 않고 사적으로 범죄자에 벌을 주는 일)를 가하는 캐릭터의 어둡고 잔인한 면모를 극대화해 시청자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사이사이에 풍자의 재미도 코믹하게 담아냈다.

KBS 2TV ‘태양의 후예’, 영화 ‘군함도’ 등 대표작들을 통해 쌓아온 강직한 이미지와는 정반대의 캐릭터이다. 과감한 변신 덕분에 2년의 안방극장 공백을 말끔히 지워줬다는 반응이 많다. 송중기는 3일 “등장인물 중 가장 극악무도한 ‘나쁜 놈’이면서 악인들을 해치우는 캐릭터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을 거듭했다”며 “실제의 나와 비

슷한 점이 많아 스스로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동안 밝은 역할을 주로 해와서인지 ‘이미지 변신’이라는 평가가 나와 흥미롭다”고 소감을 밝혔다.

드라마를 마친 이후 쉬지 않고 활동 영역을 계속 늘려갈 계획이다. 2일 ‘빈센조’ 출연 배우들과 함께 유튜브 예능 콘텐츠 ‘출장샵이야’에 출연한 데 이어 7일에는 유튜브 생중계로 온라인 팬미팅을 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멈춘 영화 ‘보고타’의 촬영도 조만간 이어갈 전망이다. 1990년대 콜롬비아로 날아간 한인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에서 낯선 땅에 정착하기 위해 애쓰는 이민자 역할을 연기한다.

유지혜 기자

응답하라 발라드! 복고 열풍 SG워너비·벤·하동균 등 소환



SG워너비 이석훈

‘응답하라, 발라드 복고!’

보컬그룹 SG워너비의 지난 히트곡이 각종 음원차트에서 돌풍을 일으킨 가운데 과거 인기 발라드곡들이 잇따라 리메이크된다. SG워너비로부터 파져나온 ‘2000년대 감성’으로 당분간 복고 열풍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화제의 중심에 선 SG워너비의 멤버이자 솔로가수 이석훈은 자신의 노래 ‘그대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를 밴드 로코베리와 손잡고 리메이크해 12일 발표한다. ‘그대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 리메이크 버전은 최근 SG워너비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린 MBC ‘놀면 뭐하니?’에 출연하기 전부터 프로젝트성으로 기획한 노래다. 로코베리의 멤버인 작곡가 안영민이 이석훈의 2010년 솔로 미니앨범 ‘인사’에 실린 원곡을 작사, 작곡했다. 안영민은 SG워너비의 ‘내사랑’, ‘라라라’, ‘아리랑’ 등을 작사해 이석훈과 인연이 깊다.

가수 황인욱도 2005년 드라마 ‘쾌걸춘향’의 OST 수록곡 ‘응급실’을 2021년 버전으로 7일 새롭게 내놓는다. 드라마 방영 당시 ‘응급실’은 izi(이지)의 오진성이 불러 뜨거운 사랑을 받았고, 미니홈피 BGM(배경음악)과 휴대전화 연결음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벤은 3인조 여성그룹 키스의 2001년 곡 ‘여자인니까’를 리메이크해 4일 선보인다. 떠나간 연인을 미워하면서도 그리워하는 여성의 감정을 담은 발라드곡으로, 여성들의 ‘노래방 애창곡’으로 꼽힌다. ‘이별 발라드의 대표 주자’로 불리는 벤이 시대를 거슬러 재해석한 ‘여자인니까’의 감성이 또 다시 통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앞서 가수 하동균은 보컬 듀오 김고봉구의 붕구와 함께 2011년 KBS 2TV 드라마 ‘공주의 남자’ OST ‘기다리게’를 10년 만에 리메이크했고, 하동균도 그룹 V.O.S의 애절한 발라드 ‘울어’를 다시 불렀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연예뉴스 HOT 3

트로트가수 장윤정, 동화작가로 데뷔



장윤정

트로트가수 장윤정이 동화작가가 됐다. 장윤정은 15일 그림동화책 ‘모두는 눈 속에 내가 있어요’를 내놓는다. 자신과 두 자녀 연우·하영의 이야기를 그린 동화이다. 제목은 장윤정의 눈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본 연우가 ‘엄마 눈 속에 내가 있어요’라고 말한 에피소드에서 따왔다. 장윤정은 이 같은 일화를 때마다 메모해왔고, 이를 바탕으로 동화를 쓰게 됐다. 그는 “실제 아이들과 겪은 에피소드를 아이들의 시선으로 그렸다”고 밝혔다.

김윤아, 애니 ‘아아와 마녀’ 테마송·목소리 출연



김윤아

김윤아가 일본 스튜디오 지브리 최초로 신작 애니메이션의 우리말 테마송을 부른다. 또 목소리 연기에도 도전한다. 김윤아는 6월 개봉하는 스튜디오 지브리의 신작 애니메이션 ‘아아와 마녀’의 테마송 ‘돈't 디스터브 미(Don't Disturb Me)’를 직접 번안해 우리말로 선보인다. ‘아아와 마녀’는 미야자키 고로 감독 연출로, ‘마녀지망생’과 마법사 등 캐릭터가 펼치는 이야기다. 김윤아는 테마송과 함께 미스터리한 마녀 역을 맡아 목소리 연기까지 펼친다.

일본 리메이크 버전 ‘씨니’ 이달 국내 개봉

2011년 745만 관객을 불러모은 흥행작 ‘씨니’의 일본 리메이크작이 이달 국내에서 개봉한다. ‘씨니’는 여고시절을 함께한 동창생들이 세월이 흐른 뒤 다시 만나 옛 추억을 떠올리며 펼쳐내는 이야기다. 한국영화에서는 심은경, 유호정, 강소라 등이 주연했다. 일본 리메이크작에서는 ‘냉정과 열정 사이’의 시노하라 료코와 ‘비웃음을 다이어리’로 낯익은 히로세 스즈가 주연했다. ‘씨니’의 매력적 감성을 더해준 음악은 아무로 나미에의 프로듀서 코무로 테츠야가 맡았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